**Direct Examination of Victim #1**

**Domestic Violence**

Questions by Prosecutor

Answers by Victim

Q. All right. Do you know John Kim?

A. 예.

Q. How do you know him?

A, 제 남편입니다.

Q. What do you normally call him? What name do you know him by?

A. 존이라고 부릅니다.

Q. When did you and John meet?

A. 2006년 이었습니다.

Q. When in 2006?

A. 십이월.

Q. And where did you meet?

A. 마이 페이지를 통해 만났습니다.

Q. Tell us what MyPage is.

A. 음, 그게, 어, 자기 프로필을 만들어서 본인에 대한 내용이나, 사진들, 관심사, 클럽 또는 뭐 그런

것를 올려놓는 장소입니다. 만남의 공간. 우리 아이들처럼, 아시다시피, 마이 페이지

계좌를 설정해 놓고 – 잘 모르지만, 자기 자랑도 하고, 뭐 그런거,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경우엔 우리가 만난 거죠. 저희 사이에 공통 관심사를 찾았고. 저희 경우엔

테니스였습니다.

Q. So did you talk on line for awhile?

A. 예.

Q. About how long did you talk on line before you met in person?

A. 음, 제가 생각하기엔12월 11일이 첫 응답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만난 게

12월27일이었는지 아니면 28일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Q. Okay.

A. 아니면 29일, 바로 그때 즈음이었습니다.

Q. So a couple of weeks after, roughly?

A.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메일이 더 않았고, 편지 왕래가 더 많았고, 연휴

가까이 서로 어디 있는지, 있는 장소 등. 그러나 내용은, “ 리지 필드나, 뭐 어뗜 장소에

가 본 적이 있느냐,” “피자나 같이 할까요,” 정도였습니다.

Q. Okay. Did you ever live with John?

A. 예.

Q. When did you live with him?

A. 8월 3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니다.

Q. This was in ’07?

A. 예.

Q. I’m just going to clarify so everybody knows we’re on the same page as far as

time periods. Okay. Did John work?

A. 예.

Q. Where did he work?

A. 해군에서요.

Q. Was he ever gon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 예.

Q. When was that?

A. 1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Q. And did you keep in touch while he was gone?

A. 예.

Q. How did you keep in touch?

A. 전자 우편, 전화 통화, 편지, 소포들입니다.

Q. About how often would you email?

A. 매일 낮, 매일 밤. 우리 둘 사이에 전자 우편 4,118통이 오갔습니다.

Q. And how often would you be able to talk on the phone?

A. 거의 매일. 어떤 때는 두 번씩이요.

Q. Okay, and he was out to sea at this point?

A. 예.

Q. Now, when John returned, what was his typical work schedule?

A. 글쎄요. 그는 4시쯤, 4:30분쯤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5시, 늦어도 5시 반이면

나갔습니다. 그의 실제 스케줄이 뭐였는지, 그게 5시 반부터 1시 반이었는지, 뭔지, 확실히 잘

몰랐습니다. 아니면 3시였는지 4시였는지. 그게말이죠, 구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본인 구역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아무때라도 일을 하면 되는거였어요.

Q. Did he have a time that he typically came home?

A. 처음엔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Q. Okay. And then at some point that time changed?

A. 예, 그래요.

Q. When was that?

A. 확실치 않은데요.

Q. Okay. And when the time changed, would he come home earlier or later?

A. 더 일찍 왔죠.

Q. About what time?

A. 그냥 나타나곤 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Q. Okay. Now when did you and John become engaged?

A. 특정 날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해야되겠다 해서. 그리고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Q. So kind of tell us about how it happened.

A. 어, 글세요, 우리둘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남은 생을 같이하고 싶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나중보다는 빨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니면 도망가 결혼하던지. 여러가지 다른 각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Q. What was your preference?

A. 우리 둘이 도망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울거고, 아이들과의 모든 문제, 뭐 그런 모든 걸 거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알다시피, 누가 참석할지, 누가 후원해 줄지 등등. 그리고, 그래, 도망가자고 결정했죠. 그런데 에밀리가 이메일을 도중에 가로채 보고 저희에게 그러더군요, “ 어어 도망 갈 생각 하지마. 너희들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될거야.”

Q. So you said it was in spring of ’07?

A. 예, 그래요.

Q. John was out to sea at this point, correct?

A. 예

Q. Now, when did you and John get married?

A. 2007년 9월 7일 이었습니다.

Q. Who did the wedding planning?

A. 존하고 제가 했습니다.

Q. So you did it over e-mail?

A. 예. 네.

Q. Why set the wedding so quickly?

A.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Q. Tell us about yours and John’s relationship in the beginning.

A. 근사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콤했습니다. 사랑스러웠고. 그가 나를 숨이 막힐

정도로 잘 해 주었습니다.